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포어 ☉

교회, 세상의 소망(빈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후발행인: 이종윤 후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ichurch.or.kr



가정의 달 특별 메시지

천사가 찾아올 가정을 만들자!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천사가 찾아올 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천사는 아무 곳이나 나타나지 않는다. 쓰레기 더미에는 파리 떼가 꼬이기 마련이요 꽃밭에는 벌 나비가 날아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천사가 찾아오도록 하려면 먼저 깨끗해야 한다. 어떤 가정을 깨끗한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

첫째, 불신앙이 제거된 가정이다.

가족 중에 이방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화합이 잘 안되고 우상 섬기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결이 잘 안 된다. 불신앙은 가족 간에 불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고 슬프게 한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전원이 성별을 받고 일상생활에서 불신앙적 요소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가정을 먼저 복음화 시켜야 한다.

둘째, 불륜이 제거된 가정이다.

부모 섬기는 일을 기피하려는 것은 불륜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인륜 중 첫 계명이다. 부경도 불륜이다. 혼외정사, 이혼, 계약결혼, 플라토닉 러브 등 잘못된 관행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비뚤어진 등지에서 온전한 달같이 없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반듯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불륜의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셋째, 천사가 찾아오려면 부정이 제거되어야 한다.

성경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을 행복한 가정이라 한다.(시 128:2) 그러므로 불로소득을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하고 부정축제는 죄악으로 여겨야 한다. 부정과 행복은 결코 병행할 수 없다.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앙이 있고 윤리가 있고 성결함이 있는 가정을 만들도록 힘쓰자. 남에게 구제할지언정 착취나 수탈을 해서는 안 된다. 천사가 찾아온 고넬료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한다.

서울교회 헌당감사와 경축행사 열두가지

우리교회는 11월 27일(주)에 드릴 헌당식을 감사함으로 준비하기위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12가지 풍성한 축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1991년 서울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기적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충성하며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한다.

행사명	기간
1. 성경필사본 제작: (구약 930장, 신약 260장 총 1,190장) : 1인1장	6월6일(월) ~ 8월31일(수)
2. 이웃초청 선교 헌당 바자	9월7일(수) ~ 9일(금)
3. 사랑의 헌혈	9월25일(주) 10시 ~ 4시
4. 어린이사생대회	10월9일(주) 10시10분
5. 이웃초청 화요음악회	10월 ~ 11월 중
6. 사명자 대회: 새비전(New vision)	10월9일 ~ 11월26일 새벽집회
7.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빌립보서 1~4장,	10월23일: 예선, 10월28일: 본선
8. 경로잔치	11월10일(목) 10시30분
9. 초창감사 찬양제: 대상: 새문안, 영락, 소망, 서울교회 찬양대 내용: 각 교회별 2곡	11월13일(주) 오후5시
10. 젊은이들의 축제: 대·청부 연극, 중·고등부 찬양	11월20일(주) 오후5시
11. 1일 선교대회 대상: 선교사 후보생 및 선교관심자 10:30 ~ 12:00:세미나 2:00 ~ 5:00: 비전대회 7:00: 선교집회	11월21일(월)
12. 헌당식, 선교사파송, 필사본성경봉헌	11월27일(주) 오후5시

제6회 한마음 한가족축제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전원에게 전통치술 등 푸짐한 선물-

제6회 한가족 한마음축제 준비위원회는 5월 5일 밀알 학교에서 열리는 화합의 축제를 위한 경기 종목들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사랑부로부터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 중교, 대청부, 에바다부와 디아스포라부, 그리고 연세 높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들이 참가하는 경기를 기획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 연석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한 본 경기종목들은 화합, 기쁨, 섬김, 단합의 정신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편성되었다. 경기 중간에 깨끗한 매너를 보인 선수들에 대한 특별시상과 보너스 점수제가 채택되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협조하는 팀에도 보너스 점수를 가산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참가한 어린이들 전원에게는 한 성도가 제공한 전통치술과 푸짐한 선물들이 주어지며, 즉구경기에는 교역자올스타와 디아스포라팀의 시범경기가 펼쳐지고 옥외 농구장에서는 중, 고등부 및 대,청부 농구대회도 별도로 열린다.

모든 성도들은 각 팀을 나타내는 유니폼과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입장이 가능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참가점수는 각 팀의 개최예배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1000점, 폐회예배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1000점이 주어진다. 각 팀은 지난 주간에 대부분의 교구가 연합모임

을 가지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축제에 대한 준비를 점검하였다.

교구별로 가지게 될 점심식사 시간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고 평소 교제가 없는 두 분의 성도와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팜플렛 안에 있는 중보기도란에 기록하여 폐회예배 시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중보기도 기록이 누락된 성도는 행운권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이미 교구 다락방을 통해 주문 배포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각 교회학교(유치, 유년, 초등, 중, 고등부, 대학, 청년부)는 104호에서 신청한 유니폼을 수령하기 바란다.

<경기종목>

- 1.큰공을 굴리자
- 2.동역자를 찾아라
- 3.지구를 흔들러라
- 4.족구 페스티벌
- 5.배구 페스티벌
- 6.지구색을 바꾸어라
- 7.풍선을 폭파하라
- 8.한마음으로 줄을 넘어라
- 9.짚 먹던 힘으로 줄을 당기자
- 10.앞만 보고 달려라
- 11.손으로 하는 한마음축구
- 12.옥외 청소년 농구대회 등

중등부 어버이 주일 학부모 초청잔치

중등부는 다음 주일 (5월8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501호에서 10시에 학부모모임을 모시고 감사 행사를 갖는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교회를 깨끗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각 부서는 행사 후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 방을 떠날때 뒤돌아 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한마음으로, 한가족으로 모입니다

김세재 장로 (한마음 한가족축제 준비위원장)



서울교회 성도들이 2년에 한번씩 5월의 축제를 엽니다. 4회 때까지는 '전 교인 체육대회'로 명명되었으나 대치동 새에배당으로 이전한 제5회 대회부터 그 명칭이 '한마음 한가족축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불러주신 성도들의 수가 날로 더하여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으나 금주 5월 5일에 전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한가족으로 한 곳에 모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한가족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을 펼칩니다. 사랑부, 에바다부, 디아스포라부로부터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르신들 다 모시고 함께 달리며 땀굴기도 하면서 우리의 잔이 넘침을 고백하는(시23:5)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 영육 간에 연합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회복과 섬김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 축제를 통해 이중윤 목사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선교와 교육과 구제의 서울교회 3대 비전이 힘차게 선포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뜻 깊은 한마음 한가족 축제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밀알학교 오는길>



농어촌 100교회 운동 자매교회 교역자 초청행사 갖는다

5월12일(목) 12시

교회는 5월12일(목) 12시에 새로 결연된 농어촌 100교회 운동 자매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을 파악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초청인원은 약 70명으로 자매교회 교역자 부부동반으로 초청된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되도록 기도한다.

어린이주일특집

내리사랑

이민호 집사(12교구)

우린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을 때에서야 지난날의 무지(無知)하였던 내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병상에 누웠을 때에서야 지난날의 건강에 감사할 수 있고, 부와 명예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재물과 명예가 축복의 한 부분이었음을 깨닫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한 모습이 있다. 바로 부모의 내리사랑이다. 내가 자녀 되었을 때에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도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보이는 현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오늘 생각해 보는 내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은 내가 부모 되기 전에 알지

못하였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님께 새로운 감사를 하게 된다.

우리 속담 가운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내가 경험했던 지난 몇 년간의 초보(?) 부모로서의 삶과 자식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았던 모습을 돌이켜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어찌면 이렇게도 잘 표현했나 싶은 생각이 든다.

내리사랑을 경험하며 생각해 보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대해 나는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 또한 자식이 부모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듯이 내가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찬송가 404장(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할 뿐이다.

어린이주일특집

오월

나소정(청년부)

일년 열두 달
년 언제가 켈 좋으니
나는 나는 오월
푸르른 오월

어린이날
아버이날
스승의날
모두의 오월

하늘은 개운
들판은 꽃천지
바람은 달콤
아름다운 오월

풀들도 어린 풀
새들도 어린 새
우리들도 어린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어린이
오월의 어린이



어린이주일특집

이런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소명 성도(13교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선물
세상의 잣대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혜의 부모가 되게 하소서

친구의 몸과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내 입술임을 깨달아
입을 발하여 나오는 말이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옴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이런 아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나은 친구의 희망과 비전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외톨이라고 느낄 때
뒤에서 저친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음으로 인해
음지의 홀로 된 친구의 옆에
누구도 아닌 자신이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낮아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지식을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는 것 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그 어떤 것 보다 필요함을 깨닫게 하소서

엄마 아빠는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친구이며
주님과의 대화도 끊이지 않게
항상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꽃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초대합니다

어버이 주일 효도잔치에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황유석(청년부 회장)

항상 나라와 교회 그리고 저희 젊은이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의 후원을 해주시는 어르신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5월8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저희 청년부와 대학부 지체들이 우리교회의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짧게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5월 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8층 만나홀에서 찬양의 시간과 1부 청년들의 재롱잔치, 2부 어르신들과의 친교, 선물 증정 등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그 짧은 시간동안 저희가 조금껏 받아 누리 고 있는 어르신들의 지난날의 수고와 기도의 은혜에 어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저희 청년들의 어르신들을 향한 변함없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길 원합니다. 부디 8층 만나홀을 은빛 찬란한 어르신들의 후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 은빛 찬양대 지휘자 및 가브리엘, 시온 피아니스트 임명

시온 찬양대와 은빛 찬양대를 지휘하던 김미진 선생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교회는 시온찬양대 지휘자로 임법창 선생(아현 관현악단 지휘 겸임)을, 그리고 은빛찬양대 지휘자로 박미영 선생(1교구)을 임명하고 또한 가브리엘과 시온 찬양대 피아니스트로 수고하던 양경실 선생이 유학을 위해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박래경 선생(10교구)을 각각 임명하였다.



박미영 선생

- 1961년생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교회음악, 성악전공)
- 청량리 중앙교회지휘
- 대전 서바나 교회 지휘



박래경 선생

- 1963년생
- 단국대학교 음대 졸업
- 관악제일교회 우성감리교회 반주자

전도학교제13기 수료식, 14기 개강

제13기 전도학교가 지난 2월13일~5월1일까지 총 12주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대학부 6명 포함 총 35명이 교육을 받았다. 또한 14기가 개강됨에 따라 전도학교에 입학할 성도들을 모집한다. 14기 전도학교는 다음 주일(5월8일) 오후 2시에 802호에서 개강되며 서명철 목사가 강사로 선다. 70인전도대에는 현재 약 60여명이 소속되어 주중에 목요 축호팀을 비롯한 중보기도, 야간전도, 노방전도활동을 통해 많은 전도열매를 맺고 있다.

다음은 13기 전도학교 수료자 명단이다.

김영주, 김중근, 박태선, 손병석, 윤운식, 주영도, 차도훈, 최차순, 최호영, 락미숙, 관선자, 김미애, 김민희, 김초일, 김현정, 남태영, 마은숙, 박영숙, 박정임, 박천희, 서희숙, 신현이, 안명덕, 이운진, 이재봉, 이혜순, 정봉금, 천정화, 황재연 (이상 장년부 29명), 서준호, 최경정, 화경, 신기원, 차신철, 정다을 (이상 대학부 6명)

사랑부 어머니회 모임

5월 7일(토) 오후 5시 102호

사랑부 어머니회 결성 및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와의 대화를 위한 사랑부 어머니회 첫 모임이 5월 7일(토) 오후 5시 102호에서 열린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한마음 · 한가족 축제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5. 공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흐르는 국가 사회가 되도록

반갑습니다

천사만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다

김경애 성도(13교구)

주일 아침, 1년 전이었으면 늦은 아침잠에 빠져있을 우리가족이 서둘러 교회에 가기 위해 부산을 땀니다. 딸아이는 올해부터 초등부 찬양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30분 먼저 출발했습니다. 주일 오전이 작은 변화가 가족 모두의 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족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3년여를 살다가 2년 전 이곳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의 학교에서 3년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 부부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었고 서울에 오자마자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시력과 친정이 모두 불교 집안이고 더구나 아이들 아빠가 장남이라 아이들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교회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루 전도하러 다니시는 서울교회 전도대원들과 아이들의 전도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 가족 모두가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새로운 직장환경, 아이 교육등 여러모로 힘들어 하던 아빠가 교회에 다니고부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기 시작하였고 나 또한 낯선 서울생활이었지만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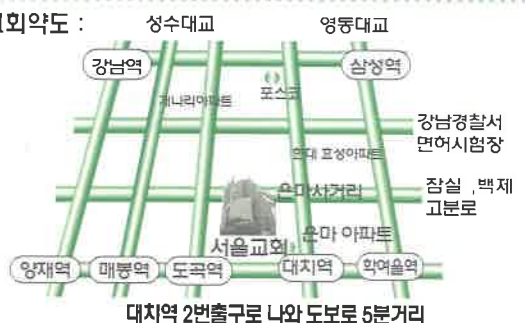
4월 새가족 환영회

강경희 강유은 경성현 김경희 김광수 김기문 김나라 김나부 김무선 김새롬 김세연 김세희 김영태 김유상 김은희 김창숙 김환희 김희선 남혜림 노희근 노희수 문혜연 민정임 박미경 박수빈 박순원 박영은 박익현 박태연 변서연 변재욱 서은미 신인순 안지현 양승무 오승주 유광영 유미진 유서현 유성원 유영선 유영진 유정록 유진영 유창현 유현주 이진희 이경자 이대형 이로경 이숙분 이예성 이우정 이우제 이은미 이경근 이제영 이주영 이지수 이지훈 이필건 임동희 임승희 임유택 임현우 장봉숙 장선자 강우진 장은지 전바른 전세준 정미경 정하은 조성희 조재원 조현인 차유림 최명진 최인숙 편미숙 권혜경 한동원 한동원 한우리 한준희 Sau ay Sinnigh
이상 86명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I부 오전 11시
예배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일(화) 서울 강남노회 36차 정기회 개회 예배시 성찬식을 집행한다. 6일(금) 한국로잔회 임원회를 소관한다.
- 이사: 5교구 김수옥 성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T.031-418-7147
5교구 홍성호 유영선 성도 관악구 봉천6동 T.873-4111
7교구 김극영 정현철 성도 서초구 양계동
12교구 한상학 성도 김천회 천사송인시수직을 T.031-263-2724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 여전도회(5월1일) 뫼비어전도회(5월8일)
- 금주의 식사: - 김중운 집사이종들 식사 가정
- 박광일 전도사 이현옥 선생 가정
-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 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30분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highway.com)